

이달의 초점

# 2023년 노인실태조사와 노년기 삶의 특성

노인의 경제생활 특성과 변화: 일과 소득

|황남희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

|김세진

노인의 건강과 돌봄

|강은내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이선희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식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노인의 경제생활 특성과 변화: 일과 소득<sup>1)</sup>

Changes in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Income among Older Koreans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2011~2023년 한국 노인의 일 참여와 소득수준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최근 약 10여 년 동안 노인의 일 참여는 높아지고 소득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과 일자리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일자리 근로환경은 노인 친화성 측면에서 양호하였다. 노인의 소득수준은 가구뿐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상승하였다. 소득 구성 측면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소득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노후생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 1 들어가며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0년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2014년 14.3%로 고령사

회에 진입하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sup>2)</sup> 2024년 7월 노인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행정안전부, 2024), 2025년 노인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3). 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

1) 이 글은 강은나, 김혜수, 정찬우, 김세진, 이선희, 주보혜, 황남희, 김경래, 이혜정, 최경덕. (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7장 및 제8장과 황남희. (2021).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 수준(보건복지포럼, 300, pp. 7~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장래인구추계, 2072, 주요 인구지표 / 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l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l2)

생)의 영향으로 향후 약 50년 동안 노인인구 내에서도 고령률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75세 이상 인구 비율은 6.8%에서 2070년 30.7%로, 8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1.5%에서 14.4%로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은 2044년 일본(2024년 기준 30.2%, 2004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지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민국 36.7%, 일본 36.5%).<sup>3)</sup>

고령화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낮춘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는 사회현상이다(황남희 외, 2021).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서 발생하는 세입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의 증가는 연금이나 보건 등 사회지출과 복지비용을 증가시켜 재정 부담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노동공급 및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총수요와 저축,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률을 낮춘다(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더욱 심화될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령화 대응 정책은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염두에 두고 근거 자료에 기초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한국은 유럽, 일본 등 고령화 선험국들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 늦고, 경제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고령화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자칫 사회적 재정 부담이 강조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낮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점에서 노년기 삶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을 통한 제도의 재정 지속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연금제도의 재정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 2024). 여기에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금액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을 낮추며, 노년기 경제적 불안정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예비 노인인 중장년층의 연금 부담을 높이고 연금 수혜를 낮춘다. 고령화 대응 정책에서 노년기 경제적 안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 글에서는 법정 자료인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노인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노인의 경제생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생활은 개인의 기본적인 삶 영위에 요구되는 소득과 이를 창출하는 일을 말한다. 노인의 일과 소득에 대한 실태는 이러한 논의에서 현재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전국 약 1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며, 노인의 생활 실태와 정책 효과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국제통계연감-영토/인구-부양인구비 및 노령화지수(년 1950~2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2&conn\\_path=l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2&conn_path=l2)

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과 개선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 경제생활 영역의 조사 문항은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서 큰 틀의 변화가 있었다(황남희 외, 2018; 황남희, 2021).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노인실태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의 현황을 분석한 후 최근 10여 년 동안(2011~2023년)의 변화 모습을 파악한다. 다만 시계열 분석에서는 조사 시점의 사회환경 및 정책 변화에 맞춰 추가·삭제·수정 등 변경이 있는 문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분석 기간을 조정하였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노인의 일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일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일자리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노인이 정책 대상으로 특화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실태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노인의 경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노인이 1명 이상 있는 노인가구의 소득 규모와 소득 구성을 분석한 후 노인 개인의 소득 규모와 소득 구성을 파악한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의 통계분석은 모두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 2 노인의 일 특성과 변화

### 가. 현재 일자리의 특성과 변화

한국의 법정 정년 연령은 60세이다. 그러나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십니까?”라고 질문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39.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47.1%는 과거 일한 경험은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평생 일을 하지 않은 노인은 13.9%이다.

경제생활은 개인의 생애 경험으로 누적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생애주기상 끝부분에 위치한 노인의 경우 개인별 차이가 더욱 클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지역, 성별, 연령, 가구형태별 이질성을 살펴본다. 조사에 응답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일 참여 실태를 비교하면 읍·면부 거주,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 노인의 절반 이상인 53.9%가 일을 하고 있는 반면 동부 거주 노인은 33.7%가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가장 젊은 노인층인 65~69세의 59.4%가 일을 하고 있으며, 70~74세는 전체 노인의 평균 수준인 38.9%가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 참여 비율이 낮지만 75~79세 29%, 80~84세 21.9%, 85~89세 14.1%, 90세 이상 5.9%가 일을 하고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가구(49.9%), 노인부부가구(42.4%), 노인독거가구(34.9%), 자녀동거가구(32.2%) 순으로 현재 일 참여 비율이 높다.

2011~2023년 노인의 일 참여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2011년을 제외하고 2014~2023년 증가 추이를 보인다. 2011년 34.0%에서 2014년 28.9%로 하락한 이후 2017년 30.9%, 2020년 36.9%, 2023년 39.0%로 증가

[표 1] 2023년 일 참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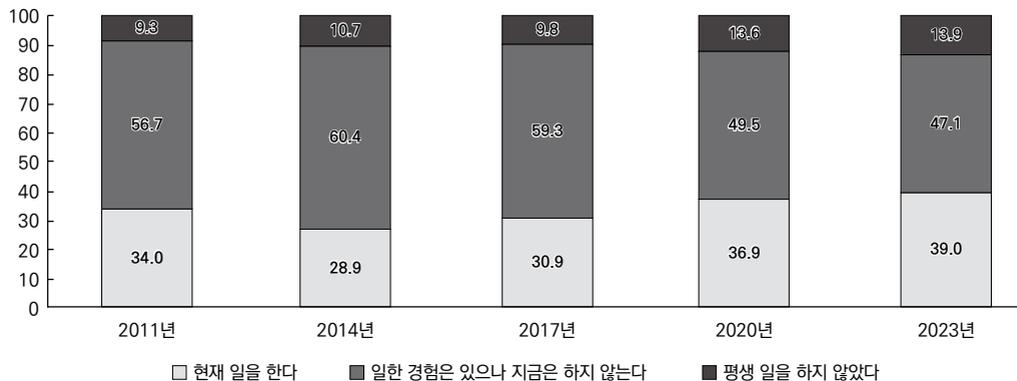
(단위: %)

구분		현재 일을 한다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계
전체		39.0	47.1	13.9	100.0
지역	동부	33.7	50.1	16.1	100.0
	읍·면부	<b>53.9</b>	38.6	7.5	100.0
성별	남자	<b>48.2</b>	50.6	1.2	100.0
	여자	31.8	44.4	23.8	100.0
연령	65~69세	<b>59.4</b>	31.5	9.1	100.0
	70~74세	38.9	48.5	12.5	100.0
	75~79세	29.0	55.7	15.4	100.0
	80~84세	21.9	59.7	18.5	100.0
	85~89세	14.1	61.0	24.8	100.0
	90세 이상	5.9	73.5	20.5	100.0
가구형태	노인 독거	34.9	51.2	13.9	100.0
	노인 부부	42.4	44.9	12.7	100.0
	자녀 동거	32.2	47.4	20.5	100.0
	기타	49.9	36.6	13.5	100.0

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02의 <표 8-1>을 재구성함.

[그림 1] 일 참여 실태의 변화(2011~2023년)

(단위: %)



주: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가 100%가 아닐 수 있으며,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출처: 1)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 수준", 황남희, 2021, 보건복지포럼, 3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 [그림 1]을 재구성함.  
2)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02의 <표 8-1>을 재구성함.

하였다. 과거 일한 경험은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데, 2011년 56.7%에서 2014년 60.4%로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23년 47.1%이다. 평생 일 경험이 없는 노인은 2011년과 2017년에 10% 내외 수준이었으나, 2020년과 2023년에는 약 14%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노인은 생계비 마련(77.9%), 용돈 마련(6.9%)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지만, 일부 노인은 건강 유지(62%), 능력 발휘(3.6%), 시간

보내기(3.1%) 등 비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한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일을 하는 이유 차이는 거의 없지만, 성별로는 남자 노인(81.1%), 연령별로는 65~69세(83.3%),<sup>4)</sup> 가구형태별로는 기타 가구(83.6%)에서 상대적으로 생계비 마련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노인이 현재 일을 하는 이유는 2011~2023년 생계비 마련이라는 응답이 큰 변화 없이 70%대로 가장 높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노인은 2017년 73.0%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 증가하고

**[표 2] 2023년 일을 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친교·사교	시간 보내기	능력 발휘	기타	계
전체	77.9	6.9	6.2	2.0	3.1	3.6	0.4	100.0
지역	동부	<b>78.3</b>	7.2	6.2	1.5	2.5	3.9	100.0
	읍 면부	77.1	6.3	6.3	2.8	4.2	2.9	100.0
성별	남자	81.1	4.2	5.9	0.9	2.6	5.1	100.0
	여자	74.0	10.0	6.6	3.2	3.7	1.8	100.0
연령	65~69세	<b>83.3</b>	3.8	4.9	1.3	1.7	4.6	100.0
	70~74세	77.2	7.3	6.5	1.8	3.5	3.4	100.0
	75~79세	67.6	11.6	9.5	3.2	6.5	1.1	100.0
	80~84세	64.6	14.2	9.5	4.1	5.5	1.9	100.0
	85~89세	64.2	18.5	5.4	4.7	5.5	1.0	100.0
	90세 이상	89.9	4.2	6.0	0.0	0.0	0.0	100.0
가구 형태	노인독거	78.5	8.1	5.6	2.7	2.4	2.3	100.0
	노인부부	78.2	5.6	6.7	1.6	3.6	4.0	100.0
	자녀동거	72.2	12.3	4.5	2.9	3.2	4.8	100.0
	기타	<b>83.6</b>	2.4	8.3	0.0	0.0	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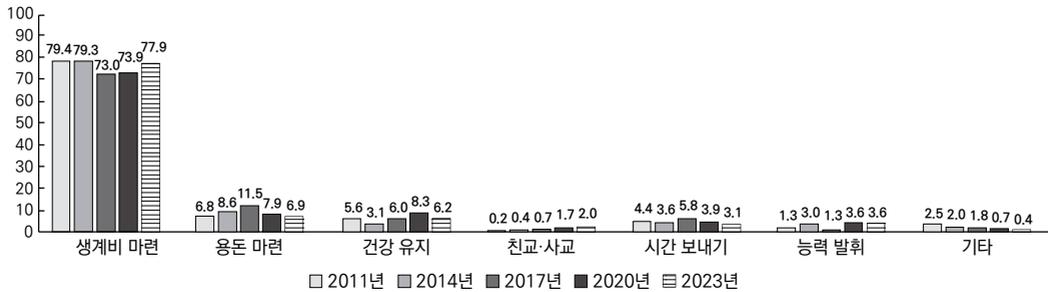
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 39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23의 <표 8-14>를 재구성함.

4) 90세 이상의 생계비 마련 응답 비율이 89.9%이나 사례수가 15명으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그림 2] 일을 하는 이유의 변화(2011~2023년)

(단위: %)



주: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가 100%가 아닐 수 있으며,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출처: 1)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 수준”, 황남희, 2021, 보건복지포럼, 3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의 [그림 2]를 재구성함.

2)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23의 <표 8-14>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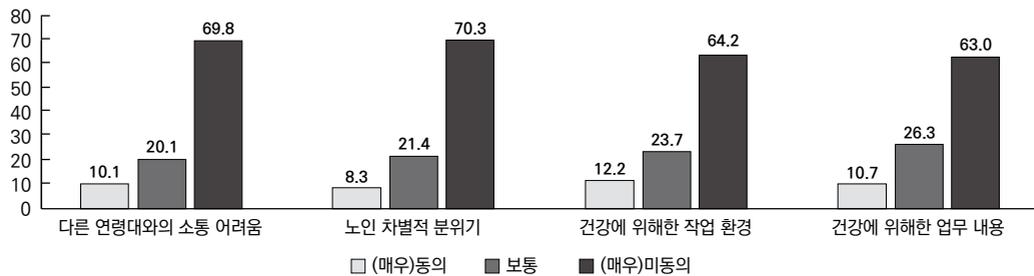
있다. 2020년 73.9%, 2023년 77.9%로 특히 2023년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인구 고령화시대 고령 인력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근무 환경의 노인 친화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새롭게 추가

하였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일터에서의 사소통 및 협력의 어려움, 노인 차별적 분위기 인식, 건강에 위대한 작업 환경 및 업무 내용 인식 여부에 대해 8~12%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 임

[그림 3] 2023년 일자리 근무 환경의 노인 친화성 인식

(단위: %)



주: 본인 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18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12-415의 <표 8-6-표 8-9>를 재구성함.

금근로자의 10.1%는 다른 연령대와 의사소통이나 협력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8.3%는 언어적 학대, 굴욕감, 소외 등 노인을 차별하는 분위기를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임금근로자의 12.2%는 현재 작업 환경이 소음·고온·저온 등으로 인해 신체건강에 위해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7%는 업무 내용이 피곤하고 불편한 자세, 무거운 짐 들고 옮기기 등으로 인해 신체건강에 위해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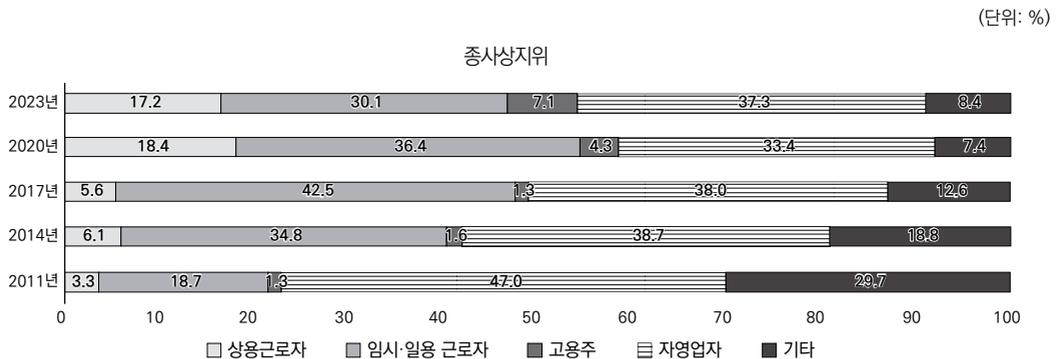
최근 10여 년 동안 노인의 일자리 특성 변화가 확인된다. 종사상지위는 최근으로 올수록 상용근로자와 고용주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경우 2010년대(2011~2017년)는 6%대 이하였으나 2020년 이후 17~18%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고용주의 경우도 그 비율이 높지 않지만 2011년 1.3%에서 2023년 7.1%로 증가하였다. 2020~2023년 (단독) 자영업자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

는 코로나19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재창업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일자리 종사 기간은 30년 이상의 장기, 5년 미만 단기의 감소 속 5년 이상 30년 미만의 증가가 특징적이다. 특히 30년 이상 종사 기간은 2011년 50.1%에서 2023년 28.0%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22.1%포인트). 5년 미만의 단기는 2011년 24.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34.8%를 차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며 2023년 23.9%이다. 이는 농축산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이 줄어들며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던 노인이 감소하는 등 노인의 일자리 비중 변화 및 다양성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하는 노인 중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율이 2011년 52.9%에서(정경희 외, 2012, p. 351) 2023년 20.3%로 크게 감소하였다(강은나 외, 2023, p.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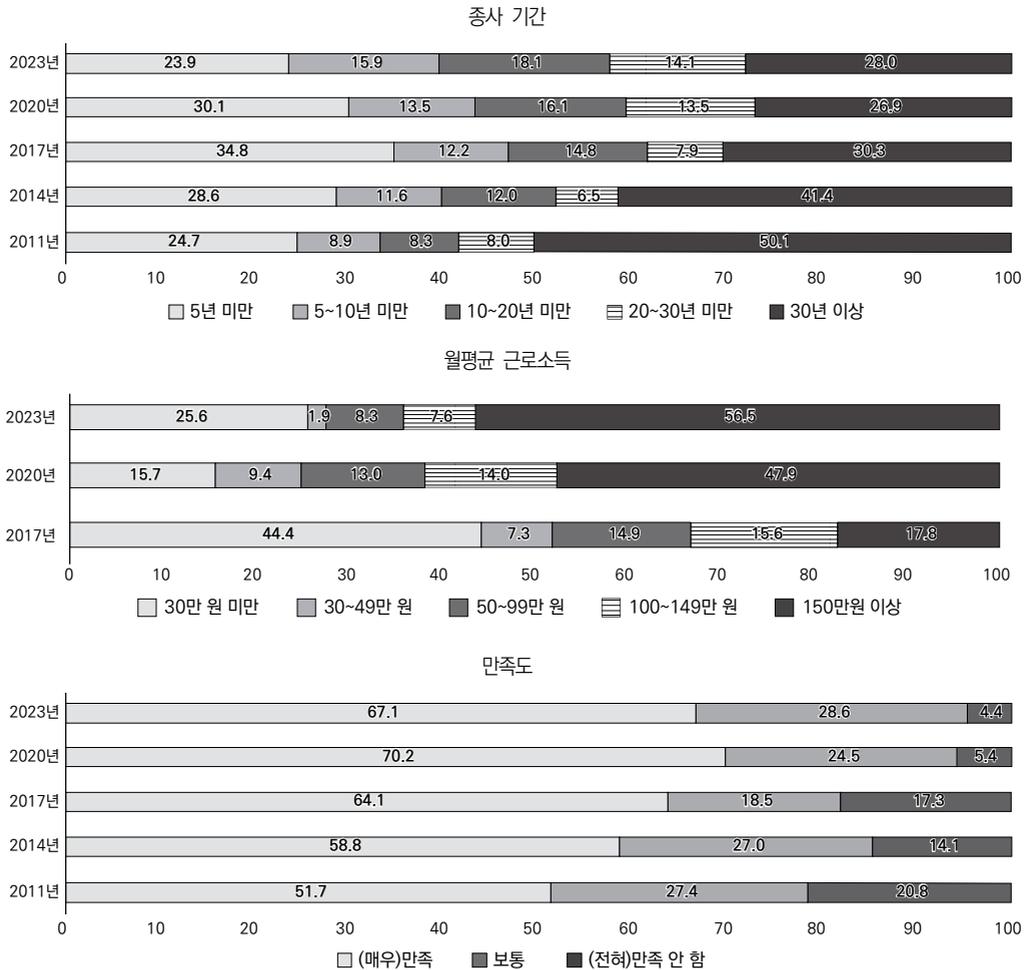
현재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최근 150

[그림 4] 현재 일자리 특성 변화(2011~2023년)



[그림 4] 계속

(단위: %)



주: 1)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931명(일자리 만족도는 이중 본인 응답자 392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가 100%가 아닐 수 있으며,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2) 월평균 근로소득은 2017년부터 조사됨.

출처: 1)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 수준”, 황남희, 2021, 보건복지포럼, 3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의 [그림 3]을 재구성함.

2)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08, p. 420, p. 422, p. 425의 <표 8-4>, <표 8-12>, <표 8-13>, <표 8-15>를 재구성함.

만 원 이상 비율과 30만 원 미만 비율이 모두 증가  
에서 2023년 56.5%로 증가(38.7%포인트)한 반  
하였다. 150만 원 이상 비율의 경우 2017년 17.8%  
면 30만 원 미만의 경우 2017년 44.4%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에서 2023년 25.6%로 감소(-18.8% 포인트)하였다.

이러한 일자리 특성 변화 속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만족도는 만족 비율(매우 만족 포함)이 2011년 51.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70.2%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3년 67.1%로 나타났다. 즉 일하고 있는 노인 10명 중 7명은 일자리에 만족하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는 노인 응답 비율(전혀 만족하지 않음 포함)이 2011년 20.8%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23년 4.4%로 낮아진 것이다.

최근 10여 년간 노인 일자리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사상지위인 상용근로자의 증가, 상대적으로 높은 월평균 근로소득 구간의 비율 상승, 일자리 불만족 비율 하락 등이 확인된다. 일자리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과 희망

전체 노인 중 6.7%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현재 참여율의 3배 수준인 22.5%이다.

[표 3]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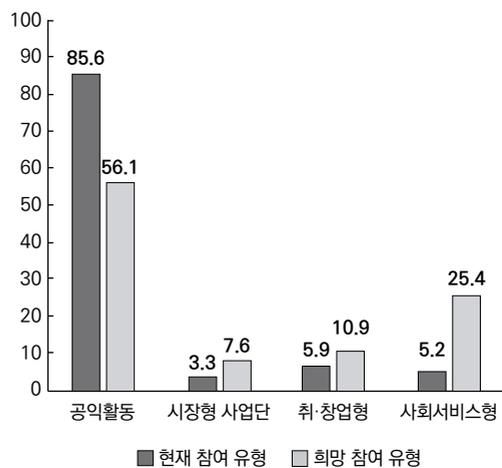
(단위: %)

구분		현재 참여율	참여 희망률
전체		6.7	22.5
지역	동부	5.2	20.7
	읍·면부	<b>10.9</b>	<b>27.6</b>
성별	남자	3.9	20.9
	여자	<b>8.9</b>	<b>23.8</b>
연령	65~69세	3.2	22.4
	70~74세	6.6	24.9
	75~79세	10.0	<b>26.2</b>
	80~84세	<b>11.3</b>	22.3
	85~89세	8.3	13.9
가구 형태	90세 이상	2.0	3.8
	노인독거	<b>9.2</b>	24.7
	노인부부	5.2	21.9
	자녀동거	6.5	18.5
기타	6.5	<b>25.2</b>	

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하였음.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47과 p. 451의 <표 8-29>와 <표 8-32>를 재구성함.

[그림 5]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및 희망 유형

(단위: %)



주: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676명,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224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48과 p. 452의 <표 8-30>과 <표 8-33>을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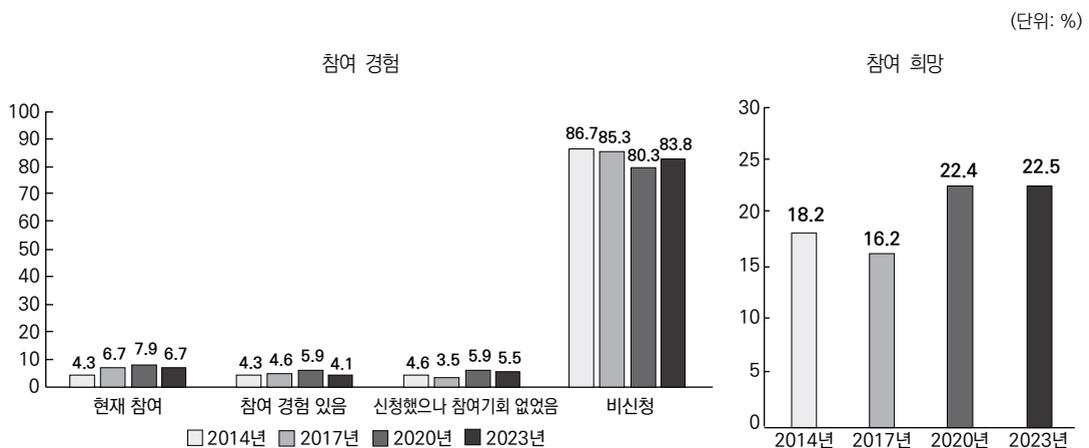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 노인(10.9%)의 현재 참여율이 도시 거주 노인(5.2%)의 2배 수준으로 높고, 성별로는 여자 노인(8.9%)이 남자 노인(3.9%)보다 참여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80~84세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11.3%이며, 90세 이상이 가장 낮은 2.0%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참여율이 9.2%로 다른 가구 유형(5.2~6.5%)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역시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비슷한 모습이다. 대부분 20%대의 높은 참여 희망률이 특징이다.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은 공익활동이 85.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 유형은 취·

창업형(5.9%), 사회서비스형(5.2%), 시장형사업단(3.3%) 순이다. 향후 희망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역시 공익활동이 가장 높지만 응답 비율은 56.1%로 현재 참여중인 유형과 비교하면 응답 비율이 낮은 편이다(-29.5%포인트). 사회서비스형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은 25.4%로 현재 참여중인 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다(20.2%포인트).

2014~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참여율은 2014년 4.3%에서 2020년 7.9%로 증가한 후 2023년 6.7%로 소폭 감소하였다. 참여 희망률은 2014년 18.2%에서 2017년 16.2%로 감소한 후 상승하여 2023년 22.5%이다.

[그림 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변화(2014~2023년)



주: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가 100%가 아닐 수 있으며,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출처: 1)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 수준”, 황남희, 2021, 보건복지포럼, 3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의 [그림 4]를 재구성함.

2)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47과 p. 441의 <표 8-29>와 <표 8-32>를 재구성함.

### 3 노인의 소득 특성과 변화<sup>5)</sup>

#### 가. 가구소득 및 소득 구성

2023년 노인이 1명 이상 있는 가구의 연간소득은 3468만 6000원이다. 노인실태조사에서 가구소득은 응답 노인의 수입과 그 외 가구원의 수입을 합산한 총수입으로 조사한다. 소득항목별로 가구소득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53.8%(1865만 7000원)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 25.9%(897만 1000원), 재산소득 11.6%(400만 8000원), 사적이전소득 8.0%(279만 1000원), 기타소득 0.7%(25만 9000원) 순이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가구소득의 차이가 있는데, 가구형태별 차이는 큰 반면 지역별 차이는 작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동부 거주 노인의 가구소득은 3587만 2000원으로 읍·면부 거주 노인의 3132만 2000원보다 455만 원 더 많고, 소득 구성에서 재산소득의 비율 차이가 큰 편이다(동부 12.6%, 읍·면부 8.3%). 성별로 남자 노인(4034만 8000원)이 여자 노인(3024만 7000원)보다 1010만 1000원이 더 많고, 소득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의 성별 비율 차이가 큰 편이다(남자 56.4%, 여자 51.1%).

연령별 가구소득은 부의 관계에 있는데,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크다. 연령이

가장 낮은 65~69세의 가구소득은 4786만 5000원이며 근로소득 비율이 68.1%이다. 반면 연령이 가장 높은 90세 이상의 가구소득은 65~69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9만 8000원, 근로소득 비율은 32.0%이다. 가구형태별 가구소득은 자녀동거가구가 5853만 9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가구(4039만 1000원), 노인부부가구(3828만 6000원), 노인독거가구(2085만 7000원) 순이다. 가구형태별 소득 규모는 근로소득 비율과 관련이 높아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74.5%인 반면 노인독거가구는 41.6%에 불과하다.

2011~2023년 실질금액 기준으로 가구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2503만 원에서 2023년 322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소득 항목별 비율은 근로소득의 경우 같은 기간 37.9%에서 53.8%로 증가(15.9%포인트)한 반면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26.5%에서 8.0%로 감소(-18.5%포인트)하였다. 그 외 소득은 같은 기간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20%대를 유지하였다. 재산소득의 경우 큰 변화는 아니지만 2010년대의 한자리 수(8.2~9.2%)에서 다소 증가하여 2020년부터 10%대(11.6~15%) 비율로 진입하였다.

5) 노인실태조사에서 소득은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정확성을 위해 작년 한 해 기준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진 연도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표 4] 2023년 가구소득 규모 및 구성비

(단위: 만 원, %)

구분		연 총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전체		3,468.6 (100.0)	1,865.7 (53.8)	400.8 (11.6)	279.1 (8.0)	897.1 (25.9)	25.9 (0.7)
지역	동부	<b>3,587.2</b> (100.0)	1,904.0 (53.1)	451.2 <b>(12.6)</b>	292.8 (8.2)	915.8 (25.5)	23.4 (0.7)
	읍·면부	3,132.2 (100.0)	1,757.3 (56.1)	257.9 (8.3)	240.5 (7.7)	843.8 (26.9)	32.9 (1.0)
성별	남자	<b>4,034.8</b> (100.0)	2,275.9 <b>(56.4)</b>	468.6 (11.6)	268.3 (6.6)	996.4 (24.7)	25.7 (0.6)
	여자	3,024.7 (100.0)	1,544.1 (51.1)	347.7 (11.5)	287.6 (9.5)	819.2 (27.1)	26.0 (0.9)
연령	65~69세	<b>4,786.5</b> (100.0)	3,260.0 <b>(68.1)</b>	393 (8.2)	214.9 (4.5)	896.3 (18.7)	22.2 (0.5)
	70~74세	3,260.5 (100.0)	1,587.8 (48.7)	375.4 (11.5)	274.5 (8.4)	1000.2 (30.7)	22.6 (0.7)
	75~79세	2,768.0 (100.0)	995.6 (36.0)	492.8 (17.8)	307.8 (11.1)	936.9 (33.8)	34.8 (1.3)
	80~84세	2,300.6 (100.0)	741.4 (32.2)	410.5 (17.8)	341.5 (14.8)	778.5 (33.8)	28.7 (1.2)
	85~89세	2,440.6 (100.0)	928.5 (38.1)	344.9 (14.1)	358.1 (14.7)	779.5 (31.9)	29.5 (1.2)
	90세 이상	2,009.8 (100.0)	644.0 (32.0)	239.5 (11.9)	402.4 (20.0)	706.1 (35.1)	17.7 (0.9)
가구 형태	노인독거	2,085.7 (100.0)	869.3 (41.6)	280.9 (13.4)	258.3 (12.4)	654.9 (31.4)	22.2 (1.1)
	노인부부	3,828.6 (100.0)	1,977.9 (51.7)	488.5 (12.8)	288.1 (7.5)	1047.5 (27.4)	26.7 (0.7)
	자녀동거	<b>5,853.9</b> (100.0)	4,359.5 <b>(74.5)</b>	351.8 (6.0)	302.1 (5.2)	818.0 (14.0)	22.6 (0.4)
	기타	4,039.1 (100.0)	2,371.4 (58.7)	170 (4.2)	251.9 (6.2)	1156.3 (28.6)	89.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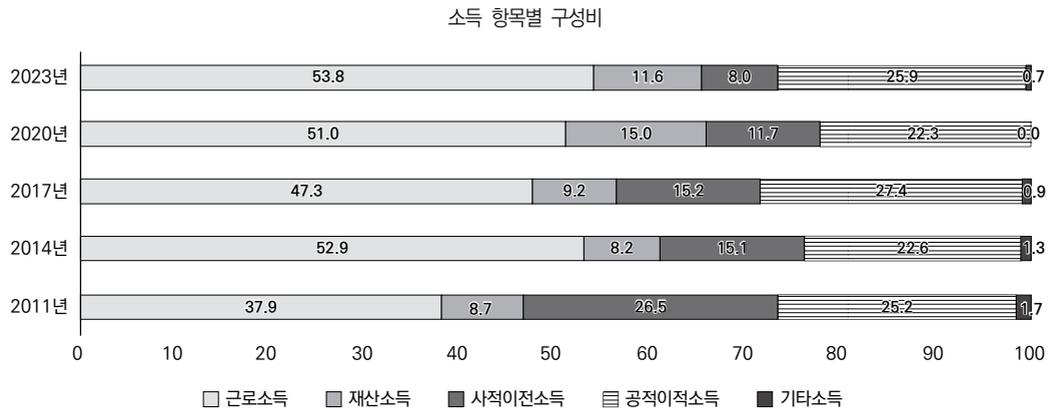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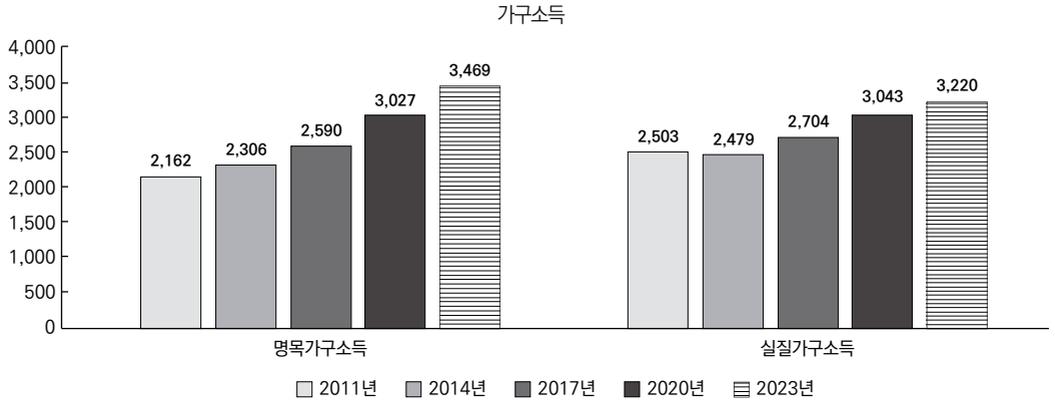
주: 1) 소득은 작년 한 해를 조사하므로 2022년 기준이며,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2)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64-365의 <표 7-2>, <표 7-3>을 재구성함.

[그림 7] 가구소득과 항목별 구성비 변화(2011~2023년)

(단위: 만 원, %)



주: 1) 실질금액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와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2)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출처: 1)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 수준”, 황남희, 2021, 보건복지포럼, 3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의 [그림 5]를 재구성함.

2)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64-365의 <표 7-2>, <표 7-3>을 재구성함.

### 나. 개인소득 및 소득 구성

노인의 연간 개인소득은 2163만 7000원이다. 소득 항목별로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가구소득(53.8%)보다 조금 적지만 개인소득에서

가장 높은 49.3%(1067만 1000원)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 26.7%(578만 3000원), 재산소득 13.9%(301만 2000원), 사적이전소득 9.2%(199만 8000원), 기타소득 0.8%(17만 3000원) 순이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개인소득은 가구 소득의 특성과 같이 동부 거주 노인, 남자 노인, 65~69세 노인에서 더 많다. 그러나 가구형태의 경우 자녀동거가구에서 가구소득이 가장 많았던 것과

[표 5] 2023년 개인소득 규모 및 구성비

(단위: 만 원, %)

구분		연 총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전체		2,163.7 (100.0)	1,067.1 (49.3)	301.2 (13.9)	199.8 (9.2)	578.3 (26.7)	17.3 (0.8)
지역	동부	<b>2,230.7</b> (100.0)	1,064.4 (47.7)	346.4 <b>(15.5)</b>	209.6 (9.4)	595 (26.7)	15.3 (0.7)
	읍·면부	1,973.7 (100.0)	1,075.1 (54.4)	173 (8.8)	172.1 (8.7)	530.8 (26.9)	22.7 (1.2)
성별	남자	<b>3,053.5</b> (100.0)	1,708.9 <b>(56.0)</b>	412 (13.5)	166.8 (5.5)	748.5 (24.5)	17.3 (0.6)
	여자	1,466.0 (100.0)	564.0 (38.5)	214.3 (14.6)	225.7 (15.4)	444.8 (30.3)	17.2 (1.2)
연령	65~69세	<b>3,071.2</b> (100.0)	2,059.3 <b>(67.0)</b>	297.7 (9.7)	141.2 (4.6)	558.4 (18.2)	14.7 (0.5)
	70~74세	2,026.2 (100.0)	942.8 (46.6)	265.9 (13.1)	187.7 (9.3)	617.6 (30.5)	12.1 (0.6)
	75~79세	1,770.3 (100.0)	524.1 (29.6)	380.1 (21.5)	221.7 (12.5)	619.2 (35.0)	25.3 (1.4)
	80~84세	1,318.8 (100.0)	228.1 (17.3)	285.4 (21.7)	254.4 (19.3)	532.4 (40.4)	18.6 (1.4)
	85~89세	1,322.1 (100.0)	134.1 (10.1)	301.7 (22.9)	298.4 (22.6)	563.2 (42.6)	24.7 (1.9)
	90세 이상	1,151.8 (100.0)	67.7 (5.9)	222.3 (19.3)	343.2 (29.8)	504.5 (43.8)	14.1 (1.2)
가구 형태	노인독거	1,983.5 (100.0)	854.1 (43.0)	280.9 (14.2)	256.4 (12.9)	569.9 (28.7)	22.2 (1.1)
	노인부부	2,321.2 (100.0)	1,216.9 (52.5)	334.2 (14.4)	164.4 (7.1)	591.2 (25.5)	14.5 (0.6)
	자녀동거	1,872.6 (100.0)	903.5 (48.2)	216.9 (11.6)	220.5 (11.8)	522 (27.9)	9.7 (0.5)
	기타	2,282.8 (100.0)	1,299.3 <b>(57.0)</b>	133.8 (5.9)	135 (5.9)	659.3 (28.9)	55.3 (2.4)

주: 1) 소득은 작년 한 해를 조사하므로 2022년 기준이며,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출처: 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49-250의 <표 II-5-8>을 재구성함.

2)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27-428의 <표 10-4>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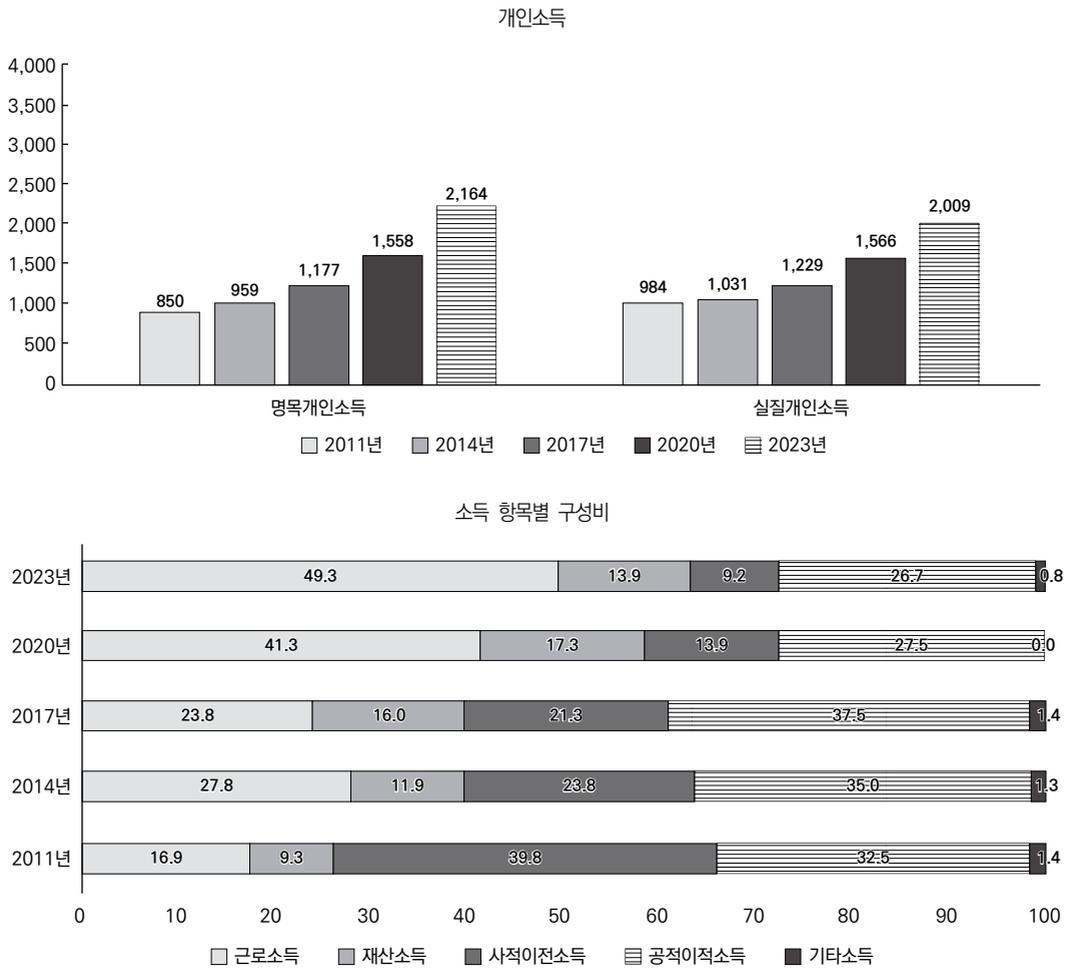
3)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이윤경 외,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77-378의 <표 8-4>를 재구성함.

4)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68-369의 <표 7-5>, <표 7-6>을 재구성함.

달리 노인부부가구에서 개인소득이 가장 많고 자녀 동거가구에서 개인소득이 가장 적다. 노인부부가구 의 개인소득은 2321만 2000원, 자녀동거가구의 개인소득은 1872만 6000원이다. 소득 구성 항목

[그림 8] 개인소득과 항목별 구성비 변화(2011~2023년)

(단위: 만 원, %)



주: 1) 실질금액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와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2)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출처: 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49-250의 <표 II-5-8>을 재구성함.

2)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27-428의 <표 10-4>를 재구성함.

3)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이윤경 외,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77-378의 <표 8-4>를 재구성함.

4)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68-369의 <표 7-5>, <표 7-6>을 재구성함.

별 특성 역시 가구소득에서와 같이 개인소득 규모와 근로소득 비율의 정의 경향성이 있지만, 지역의 경우 동부 거주 노인의 근로소득 비율이 낮고 재산소득 비율이 높다.

2011~2023년 실질금액 기준 개인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984만 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3년 2009만 원이다. 소득 항목별 비율로는 근로소득이 같은 기간 16.9%에서 49.3%로 크게 증가(32.4%포인트)한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39.8%에서 9.2%로 감소(-30.6%포인트)하였다. 개인소득의 항목별 비율 변화는 가구소득의 항목별 변화보다 더욱 커서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구소득에서와 달리 개인소득에서 최근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구성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 4 나가며

2011~2023년 노인의 경제생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과 일자리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일자리 근로환경은 노인 친화성 측면에서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노인 대상 일과 소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정년 의무화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은 49세 전후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인들은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일을 하고 있다.

2011~2023년 노인들의 일 참여율은 34.0%에서 39.0%로 증가하였다. 노인인구의 절대 규모 증가까지 고려하여, 우리는 일하는 노인의 모습을 과거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다. 노년기 일은 사회에 기여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발적 선택일 때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인의 일 참여 증가는 비자발적 선택일 수 있다(천재영 외, 2023).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등은 노인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방하남, 신인철, 2011). 따라서 노인 대상 일 정책은 이러한 맥락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중장년 친화적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 이러한 논의에 일을 원하는 노동취약계층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 참여율은 읍·면부 거주 노인, 남자 노인, 저연령 노인의 참여가 높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인 노인일자리사업은 도시 거주 노인, 여자 노인, 고연령 노인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취약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은 2023년 6.7%로 2014년 4.3%에 비해 증가했지만, 2023년 기준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비율인 22.5%와 비교하여 매우 낮다. 따라서 노인들

이 선호하는 사회서비스형(현재 참여 5.2%, 향후 참여 희망 25.4%)의 확대를 포함하여 앞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의 양적 성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2023년 노인이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분 아니라 노인 개인의 소득수준 역시 상승하였다. 소득 항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이 줄어 들고 근로소득이 커지고 있다. 2023년 개인소득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은 확대 후 최근 축소되어 26.7% 수준이며, 근로소득이 절반 수준인 49.3%이다. 그에 반해 전통적인 가족 의존적인 소득인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9.2%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집단 내에서도 읍·면부 거주 노인, 여자 노인, 고연령층, 독거가구 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곧 노인을 부양하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사회적인 부양 부담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평균 14.2%) 중 가장 높은 40.4%라는 점에서 소득보장성에 대한 고려 역시 중요하다(OECD, 2023). 정부는 국민이 노후 삶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등과 같은 조세 기반의 소득안정망 내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은나, 김혜수, 정찬우, 김세진, 이선희, 주보혜, 황남희, 김경래, 이혜정, 최경덕. (2023).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하남, 신인철. (2011). 강요된 선택: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재취업의 동향분석. **한국사회학**, 45(1), 73-108.
- 보건복지부. (2024. 9. 4.).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보도자료].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정경희, 강은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 **윤석열 정부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황남희, 김경래, 오신휘, 박보미, 신현구,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황남희, 김세진, 이선희, 이석구, 홍승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이지현, 권중돈, 김수봉, 이소정, 이용식, 이윤환, 최성재, 김소영. (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천재영, 이주원, 최봄이, 강형민, 윤열, 남기철, 손창균, 최현수, 윤강재, 이일현, 손호성. (2023). **한국 어르신들의 일과 삶 패널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통계청. (2023. 12. 1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보도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장래인구추계, 2072, 주요 인구지표 / 전국**. 2024. 9. 1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I2)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연감(2023)-영토/인구-부양인구비 및 노령화지수(년 1950~2100)**. 2024. 9. 1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2&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2&conn_path=I2)
- 행정안전부. (2024. 7. 11.).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넘어**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4071111335144201&rs=/synapFile/202409/&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4071111335144201%26rs%3D%2FsynapFile%2F202409%2F&synapMessage=%EC%A0%95%EC%83%81](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4071111335144201&rs=/synapFile/202409/&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4071111335144201%26rs%3D%2FsynapFile%2F202409%2F&synapMessage=%EC%A0%95%EC%83%81)
- 황남희. (2018). 노인의 경제생활 여건과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264**, pp. 31-43.
- 황남희. (2021).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 수준. **보건복지포럼, 300**, pp. 7-21.
- 황남희, 이원진, 진화영, 이상협, 안서연. (2021).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78055dd-en>

# Changes in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Income among Older Koreans

Hwang, Nam-hui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rawing on the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this article examines changes in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income among older Koreans from 2011 to 2023. Both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income levels have increased among older adults in Korea. Average monthly work income and job satisfaction have also risen, and workplaces have become more accommodating to older adults. Over the past decade, older Koreans have seen increases in both household and individual incomes, with a greater share coming from earnings and a reduced percentage from private transfers. Despite these changes, however, the poverty rate for the elderly population remains higher in Korea than in nearly all OECD countries. The government should mobilize a wide array of policy instruments to help people live their later years with dignity.